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일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 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광주 6/18℃ 목포 8/17℃ 여수 8/17℃
단기 4343년 (음력 3월 17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662호 1판 2010년 4월 30일 금요일

온통 공천싸움…공약경쟁 실종

지역 유권자들 다양한 정책 제안하며 민주당에 쓴소리

광주·전남지역에서 사실상 '여당' 노릇을 해온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공천싸움에 열중하면서 지역발전과 복지를 위한 정책 제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각 직능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분야별 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 각 당과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에게 정책 연대를 제안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전 투구'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 신당 등 또다른 정당 후보들은 지역발전과 지역민 복지를 위한 정책을 하나씩 챙겨나가고 있어 민주당과 대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9일 각 정당 관계자에 따르면 각 당 광주시장 예비후보와 시·군·구 자치단체장 후보 사무실에는 유권자들을 비롯한 각 직능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정책 제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나라당과 군소정당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는 전화와 팩스,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많게는 하루 10여 건의 정책제안이 접수되고 있다. 지역 유권자들의 이기적인 '민원성' 정책도 많지만, 복지와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정책제안들이 대부분이다. 이 중에는 친환경 에너지 시범마을조성, 전기자동차 조기도입 등 다양한 제안들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장기기증자에 대한 주차료 할인, 공영주차장 할인제도, 가로수 테마거리 조성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도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후보들은 이러한 유권자들의 아이디어를 놓고 정책팀과 상의해 세부 내용을 수정하는 등 막바지 정책공약 손질에 골몰하고 있다.

직능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도 정책 요구안을 내놓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와 치과의사회,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광주·전남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이날 광주지역 보건의료정책 요구안을 발표하고 각 당과 예비후보들에게 정책연대 및 정책협약을 제안하고 나섰다. 합의된 정책을 근거로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당선인의 임기 내 정책실현을 돕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영산강 지키기 광주·전남시민행동'도 광주시장·전남지사 예비후보 6명을 상대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포함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강 사업을 반대한다'는 내용에 합의하는 서약식을 갖기도 했다.

지체장애인 협회 등도 '장애인 매니페스토 추진단' 발대식을 갖고 장애인 정치 참여 확대 및 선거공약 검증, 장애인 복지발전 제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광주·전남지역 광역·기초단체장을 비롯한 지방의원 경선과정에서 터져나온 갖가지 잡음으로 매일 '공천 다툼'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매일 '재심' 신청과 '불복 선언'만이 쏟아질 뿐 정책 제시는 아예 사라진지 오래다.

이 때문에 지역민들은 사실상 '여당'역할을 해 온 민주당을 외면하고 있다.

시민 이모(43)씨는 "각 정당 예비후보들은 정책 발굴과 정책 제안을 통해 시민들에게 접근하고 있는데,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매일 경선과정의 각종 의혹 등을 내세우며 오로지 공천 따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면서 "지금껏 민주당이 호남지역민들로부터 대우를 받았다면 이제 지역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공약 개발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민여러분 고맙습니다" 고(故0 천안함 46용사 합동영결식이 열린 29일 경기 평택시 원정초등학교 앞에서 시민들과 학생, 유치원생들이 나와 떠나는 차에 국화 꽃을 던지며 손을 흔들자 한 유가족이 손을 내밀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등산 개발, 모아건설 '바통'

법정관리신청 금광기업 지분 100% 인수

광주시가 추진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모아종합건설이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인 금광기업의 법정관리신청으로 인해 차질이 예상됐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고비를 넘기게 됐다.

박광태 광주시장, 고제철 금광기업 회장, 박치영 모아종합건설 회장, 김영진 광주시도시공사사장 등은 29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모아종합건설이 금광기업으로부터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권한과 의무를 모두 승계하기로 합의했다.

모아종합건설은 금광기업과 금광기업 계열사인 광주관광개발 등이 소유한 어등산리조트(주)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모아종합건설 관계자는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입지조건이나 수익 측면에서 사업성이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며 "향후 3400억원 정도의 자금을 순차적으로 투입해 애초 계획했던 기간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광산구 어등산 일대 273만3000여㎡를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오는 2012년까지 1단계로 빛과 예술센터, 빛의 전망대, 골프장 그리고 2단계로 2015년까지 특급호텔 등을 조성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06년 착공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최초 사업자인 삼능건설과 금광기업이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모아종합건설까지 사업자가 두 번이나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앤디 워홀… 신디 셔먼…

광주비엔날레 스타작가 30개국 130여명 참여

앤디 워홀, 조나단 브로프스키, 제프쿤스, 브루스 나우먼, 신디 셔먼….

오는 9월 개막되는 제8회 광주비엔날레(9월3일~11월7일)에는 작고작가에서부터 현재 활동하는 작가까지 세계 30개국에서 130여 명의 작가들이 참가한다.

〈관련기사 12면〉

특히 이번 비엔날레의 전시주제인 '만인보(10000 Lives)'에 맞춰 현대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유명 사진작가들의 작품도 대거 출품된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 작가와 작품 등 기본 전시구성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광주비엔날레에는 20세기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1928~1987년)을 비롯해 현대미술의 아이콘인 제프쿤스, 지난해 베니스비엔날레 황금사자상 수상자인 브루스 나우먼, '사진계의 전설' 워커 에반스와 신디 셔먼 등 스타작가들의 작품이 관람객들과 만난다. 또 한국작가로는 지난해 베니스비엔날레 본전시와 한국관 전시에 참여했던 양혜규를 비롯해 설치미술가 이승택과 함양아 등 13명이 참가한다. 광주작가로는 '마지막 간판장이'로 불리는 박태규가 유일하게 참여작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예술총감독은 오는 8월 최종 참여작가와 작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

46勇士 국민 가슴속에 잠들다

천안함 희생장병 영결식 엄수…대전현충원 안장

故 '천안함 46勇士'의 숭고한 넋을 국민들의 가슴 속에 담는 영결식이 29일 오전 10시 해군 평택 2함대사령부 내 안보공원에서 '해군장'으로 엄숙히 거행됐다. 〈관련 기사 5·6면〉

영결식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 전두환 전 대통령, 이용훈 대법원장, 김형오 국회의장 등 3부요인과 국무위원, 전두환 전 대통령, 전군 주요지휘관 및 유가족 등 2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가량 진행됐다.

희생 장병들에 대한 경례 및 묵념으로 시작된 이날 영결식에서 이 대통령은 고귀한 젊음을 국가를 위해 바친 故 이창기 준위를 비롯한 46명의 희생장병 모두에게 일일이 화랑무공 훈장을 추서했으며,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의 조사, 천안함 갑판부사관 김현래 중사(해군부사관 196기)가 추도사를 각각 낭독했다.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조사를 통해 "당신들이 남긴 살신보국의 참군인 정신은 모든 국민이 자자손손 이어 누릴 자유와 번영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했다.

천안함 생존장병인 김 중사는 추도사를 통해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충격과 혼란으로 우리는 암흑천지의 바다에 떨어졌다"고 당시의 끔찍했던 상황을 회고한 뒤 "한 명 두명 구조선에 올랐지만, 당신들의 애끓는 영혼에는 미처 닿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그대들을 천안함 속에 남겨둬서 미안하다.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해군 의장대 208명이 도열한 가운데 호위병 2명의 선도로 대형 태극기와 해군기를 앞세운 운구행렬은 용사들의 영현과 영정과 위패, 훈장, 운구함 순으로 이동했다. 운구는 유가족들과 함께 해군 아파트로 거쳐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동, 이날 오후 3시 사병묘역에 안장됐다. /연합뉴스

학교설립 56주년(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